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물가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

- 올해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적인 이상기온, 풍부한 유동성, 임금 및 상품 가격 상승, 명절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.
 - 춘절을 앞두고 남부지방의 한파와 북부지방의 이상 건조현상(南凍北旱)이 수확량 감소와 물류비 상승을 견인하며 최근 5주간 전국 50개 도시 주요 식품의 대부분(29종의 조사 품목 중 28종)의 가격이 상승했으며, 일부 품목은 상승 폭이 20%에 달함.
 -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 등 주요 기관들은 이러한 농산품 가격의 상승세와 함께 풍부한 통화 유동성, 임금 및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8개월 래 최고치를 보였던 작년 11월의 5.1%보다 높은 5.2~5.5%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.

- 또한 최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어음 및 채권발행을 중단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춘절 전후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증대됨.
 - 중국인민은행은 그동안 적극적인 자금회수를 통한 유동성 축소에 주력해왔으나, 최근 2주 간 중앙은행 어음과 1년만기 채권 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춘절 연휴 전 자금압박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약 3,500억 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조치를 단행함.
 - 이번 조치는 명절 전 자금수요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시장조작에 불과하지만,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수요가 막바지에 이르는 춘절 전후로 추가 금리인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음.

(상해증권보, 경제참고보, 1/26)